

# 천명을 감당하는 교회

시편 122:1-9, 사도행전 20:22-32

최정웅 목사님

예수님은? 그리스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 모든 문제? 끝! 할렐루야! 영상을 통해서, SNS를 통해서 여러분이 49주년을 축하하는 축제를 잘 봤다. 너무 잘 하셨다. 여러분이 자랑스럽고, 주님의 이름으로 칭찬을 드리고 싶다. 수고하신 분들에게 치하를 드린다.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영광을 받으실 줄 믿는다. 여러분의 수고에 대한 보상과 사랑과 축복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필요에 따라 갚아 주시기를 기원한다.

어제가 우리 교회가 세워진지 만 49년이 되는 날이었다. 1967년 9월 17일에 우리 교회가 시작되었다. 하나님의 말로 다할 수 없는 은혜와 사랑, 그 축복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영광의 박수를 하나님께 돌리자. 이번에 남미 집회는 파나마 집회였는데, 그분들이 원래 찬양하면 두세 시간씩 몸 흔들고 찬양하는 분들이었다. 그런데 이번에 가니까 얼마나 경건하게 찬양하고 준비하든지, 차분하게 기도하고 말씀을 뜨겁게 받더라. 하나님의 은혜가 놀라웠다. 우리가 이렇게 감사하는 중에, 우리 교단 총회가 내일부터 우리 교회에서 열리게 되었다. 그 준비도 거의 만전에 기할 만큼 여러분이 헌신하고 있는 모습을 내가 보고 또 듣고 있다. 50년 되어가는 교회의 정체성을 우리 교우들이 갖춰가고 있구나 하는 생각을 했다. 모든 교회 지도자들은 이런 성도들의 마음과 신앙과 헌신을 마음에 담고 주님을 섬겨야 하겠다. 하나님의 소원인 전도운동을 위해서 온 교단이 하나되는 시간이 되도록 여러분이 함께 기도해주시기 바란다. 후대를 살리기 위해서 일심하는 시간이 되도록 기도해주시기 바란다. 귀중한 응답을 받는 중에, 최고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는 이번 한 주간 되기를 축복한다.

그렇다면 교회가 과연 무엇이나 하는 것을 우리가 먼저 알아보는 것이 좋겠다. 교회는 사실은 어떤 건물을 말하는 게 아니다. 이 건물이 아름다운 성전이지만, 교회가 아니라 교회가 들어있는 당(堂)이다. 교회당이다. 교회는 곧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우리 자신이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우리 위에, 예수님께서 직접 세우신 것이 바로 교회다.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했을 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다. "내가 이 반석, 이 신앙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래서 우리 자신이 곧 교회임을 여러분은 잊지 마시기 바란다. 고린도전서 3:16의 말씀대로, 하나님은 우리를 성전으로 삼고, 지금도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계신다.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가, 즉 예수 생명을 가진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모여서 교회가 된 것이다. 생명 가진 사람들이 모여서 이 정착민촌에 천막을 치고 교회를 세운 것이 이제 50년이 되어 가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부르신 교회요,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이며, 하나님이 인도해주시는 교회 공동체다. 신앙 본문의 말씀대로, 그리스도께서 피로 값 주고 사신 교회 공동체인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 누구도 피로 사신 형제를 해치거나 교회를 해치는 일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이 말을 하더라도 세우는 말을 해야 하고, 생각을 해도 살리는 생각을 해야 한다. 해치는 말을 하지 말아야 한다. 이제 총회를 책임지고 1년 동안 봉사할 기회가 내일 주어질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된다면 나는 살리는 일을 위해서 일할 것이다. 교회의 평화를 위해서 일할 것이다. 자제는 섬기는 자세로 할 것이다. 대단한 권세를 얻은 것처럼 착각하면 안 된다. 교회의 직분은 그것이 아니다. '어떻게 하면 교회의 일이 되게 하고, 어떻게 하면 교인들을 기쁘게 하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어떻게 하면 사람을 살리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천명을 이루는 데에 내가 봉사할 수 있을까, 모자란 것을 내가 채우면 좋겠다. 하나님, 내게 채울 힘을 주시옵소서.' 이것이 교회가 행할 일이고 교인들이 생각하고 행할 일이다. 오늘 두 가지로 감사의 제목과 실천 미션을 찾아보려고 한다.

## 1. 하나님은 지금도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신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사실이다.

(1) 하나님은 사실상 제일 처음부터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셨다. 교회의 시작이 언제 어디인가? 원래의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하나님과 함께 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존재로 창조되었다. 아담과 하와가 가정 공동체로서 먼저 하나님과 함께 함을 누리고 예배를 드렸다. 이것이 교회의 시작인 것이다. 그런데 이들이 사단에게 속아서 범죄해서 하나님을 떠나 망해 버렸다. 이런 노래가 있다. "참으로 아름답다, 우리의 농촌은. 뿔뿔산 녹음에 새들이 울고, 앞 냇가 시냇물에 고기는 뛰놀며 푸른 풀밭에 송아지 뛰네. 산기슭 초가집에 예수님 모시고 아침저녁에 식구가 모여, 기쁜 찬송 감사기도 가정예배하니, 주님이 베푸신 낙원이로세." 하나님 모시고 사는 가정이 처음 교회였다. 우리 모든 가정이 그렇게 되기를 바란다.

(2) 그런데 이들이 사단에게 속아서 범죄해서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다. 그러나 하나님은 실패한 인간을 멸망에 내버려두셔야 하는데,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

지 않으시고 다시 살 길을 열어 주셨다.

- ① 그것이 창세기 3:15이고 창세기 3:21이다. 여자의 후손을 보내서 뱀의 머리를 통을 박살내시고, 저들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히셔서 그들을 다시 살려주신 것이다.
- ② 이 언약을 붙잡고 멸망에서 살아남을 방주가 곧 교회다.
- ③ 이 언약을 전달한 아브라함의 가문이 곧 교회다.
- ④ 출애굽기 3:18에 피 제사를 회복하게 하심으로써, 마침내 유월절 양의 피를 바로 애굽에서 빠져나온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교회 공동체였다.
- ⑤ 그들은 이 공동체에서 성막과 세 절기를 가지고 복음을 누리면서 광야를 통과했다.
- ⑥ 그러다가 다윗을 통해서 언약케 모실 성전이 준비된 것이다.
- ⑦ 복음 놓치고 포로되었다가, 램넛트가 일어나서, 다시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되었다. 거기에서 다시 성전을 세우고 복음 공동체를 회복하게 되었다.

이것이 구약시대에 하나님이 역사하신 방법이었다. 한 마디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사역은 복음이었다. 이 복음을 붙잡고 이것을 전 세계에 전달하는 일을 위해서, 하나님은 시대마다 교회를, 참 예수님 모신 사람을 사용하셨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절대 교회를 세우지 못한다. 교회를 파괴한다. 우리 참사랑 가족들은 교회를 세우는 자가 되시기 바란다. 어떻게 해야 교회를 세우고 살릴 수 있을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의 천명을 더 많이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할 수 있을까 기도해야 한다. 나의 무엇을 드려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가 될지, 내가 무슨 말을 해야 교회를 살리겠는지 기도하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

(3) 신약시대에 기쁜 하나님은 초대교회를 통해서 역사하신다. 주님은 저 예루살렘에 있는 대단한 성공자들을 부르시 않고, 가장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들을 부르셨다. 가난하고 못 배우고 배경 없는 사람을 부르셨다. 이들에게 복음을 주시고, 복음 안에 있는 능력을 체험하게 하시고, 이 능력을 가지고 세계로 나가도록 하셨다. 그래서 우상숭배에 빠져 있는 저 강대국 로마를 뒤집어 버린 것이다.

(4) 로마가 복음화된 이후에 천주교가 복음을 놓치고 부패와 타락에 빠져 버렸다. 복음이 전혀 전해지지 않으니, 중세시대 때에는 재앙이 그치지 않았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종교개혁자들을 일으켜서 시대를 살리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신 것이다. 교회가 복음을 회복할 때마다 시대가 살아나고, 전도와 선교의 사명을 회복할 때 나라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다. 이것이 지금까지 내려온 2천 년 교회의 증거요 세계사의 증거다.

(5) 그리고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되었는데, 지금 시대는 지난주에 아모스서 말씀을 받은 것처럼, 육신적으로는 풍족하고 풍요로운 시대가 되었다. 대형교회가 여럿 생겼고, 교회 안의 문화도 화려해졌다. 그런데 실제로 현장에 나가 보면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해지지 않고 있고, 교회는 복음 말고 다른 이야기를 더 많이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다. 그런 가운데 여러 가지 부조리가 사회에 많아지고, 사람들은 잘 사는 시대에 오히려 희망을 점점 잃어가고 있다. 교회는 사회의 지탄을 받게 되어 버렸고, 유럽과 미국에서는 교회가 문을 닫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이렇게 위기를 만난 것이 지금 시대의 모습이다. 이럴 때에 하나님은 지금 교회를 살릴 한 사람을 찾고 계신다. 여러 사람이 아니라 한 사람이다. 루터 한 사람이 세계를 살렸다. 장 칼뱅 한 사람이 타락한 중세를 살렸다. 무디 한 사람이 타락해가는 미국을 살렸다. 윌리엄 부스 한 사람이 정신적으로 망해 가는 대영제국을 살렸다. 교회를 회복시켜서 시대를 살릴 하나님의 사람을 하나님은 지금도 찾고 계신다. "주여, 제가 여기 있사오니, 저를 들어 교회 살리는 자가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가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주인공이 나와 내 후손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기도가, 교회의 생일을 맞아서, 교회의 뜻을 생각하면서 여러분에게 회복되기를 바란다. 여러분이 오늘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기를 축원한다.

## 2. 하나님께서 교회에 주시는 천명목표가 무엇인가?

그러면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교회에 주시는 천명목표가 무엇인지 알아야 되겠다. 그 미션을 발견하고 나의 것으로 붙잡게 되기를 바란다.

(1) 첫 번째 중요한 우리 교회의 미션이 무엇인가? 우리 교회가 위치한 이 지역 곳곳에 생명 살리는 시스템을 세우는 것이다. 복음을 계속 선포하는 것이 교회의 천명이다.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셔서 죄와 사단과 지옥의 모든 문제를 겪으시고,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다. 내가 영어는 잘 못 하지만, 이것은 외우고 있다. 총회 때 이야기하려고 (웃음) "The church exist by mission, as fire exist by burning." 불이 탐으로써 존재하듯이, 교회는 전도와 선교함으로써 존재한다. 교회가 있는데 전도 안 하고 선교 안 하면 교회가 아니라는 말이다. 교회는 전도할 때 교회가 된다. 그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다. 이 사실을 매주, 매일 선포하는 시스템을 현장 곳곳에 계속 세워나가야 한다. 이것이 캠프 운동이고 지교회 운동이고 미션 홈 운동이고 다락방 운동이다. 우리 가정에 다락방을 해 본 적이 없다. 우리 가정에서 미션 홈을 생각해 본 적이 없다. 지교회 어떻게 할까 고민해 본 적이 없다면 회개해야 한다. 나

를 왜 중직자로 불렸는지를 생각해 보아야 한다. 특히 참사랑교회에서 중직자 된 이유가 무엇인지를 생각하고 고민해 보아야 한다. 어느 날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 주시면 가능해진다. 어느 날 문이 열린다. 이것이 캠프 운동이다. 지교회 운동이고 미션 홈 운동이다. 20년을 들었으면, 이제는 입만 열면 나와야 한다. 그것을 기초적으로 하게 하기 위해서 계속 복음성구를 암송시키고 복음소식을 암송시키는데, 이렇게 가지고 있으면 입만 벌리면 나오게 되어 있다. 지금 OECD 국가 중에서 자살률 1위를 몇 년째 하고 있는지 모른다. 하루에 44명이 자살한다. 그런 나라에 우리가 살고 있다. 노인들도 자살하고, 초등학생 중학생이 자살한다. 복음 가지면 그들을 살릴 수 있다. 그래서 이것을 정말 가지고 있어야 한다.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가지고 있어야. 그리고 말할 때에는 온유와 두려움으로 해라.” 내가 잘못 말하면 저 사람이 멸망할 수 있기 때문에 온유와 두려움으로 해야 하는 것이다. 물론 의사가 중기를 확 찢어 버려야 할 때도 있다. “당신은 그렇게 살다가 지옥 가세요.” 그렇게 말해야 할 때도 있지만, 극히 드물다.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지 않고 막 하면 안 된다. 여러분이 현장에 가면 그렇게 말해야 하는 상황이 온다. 그래야 영혼이 살아나니까 수술을 해야 할 때도 있지만, 대부분 때에는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라. 참사랑 가족들이 축복 받으시기 바란다. 모든 중직자들은 자기 지역에 지교회 세울 결단을 하시길 바란다. 어떻게 해야 하는지 기도하고 연구하라. 대부분 교회에서 헌금 많이 하는 사람, 나이 많은 사람을 중직자로 세우고 있다. 그러나 초대교회는 중직자들이 전부 자기 현장에서 말씀운동을 일으켜서 세계 살리는 운동을 했다. 우리가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는 것이다. 이것이 우리 운동이다. 그래서 바울 팀이 일으켰던 두란노 운동을 이 시대에 다시 일으키고 실천하자는 것이다. 지역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복음을 듣게 되는 지교회 운동이 우리교회에서 일어나야 한다. 다락방 교회에서 다락방을 한 번도 안 해 봤으면 다락방 교인이 아니지. 결혼하는 사람은 ‘우리 집은 미션 홈이야’ 생각을 해 봐야 할 것 아닌가.

이번에 왔더니 골프선수 최진호 프로가 아파트에 사는데, 식당으로 우리를 초청해서 거대한 저녁식사를 대접했다. 어린 아이 둘을 데리고, 또 뺨속에 이만큼 아이를 안고 나타나서, 카드를 우리에게 하나씩 주더라. 웬 카드인가 하고 열어보니까 돈이 들었다. 부끄러웠다. 이제 겨우 서른 초반의 청년이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나 싶었다. 돈을 받아서가 아니라, 저 아이들의 가슴 속에 복음이 들어갔구나,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고 있구나 하고 느껴지니까 감동이 왔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태어나서 무엇을 하다가 하나님 앞에 갈 것인가. 하나님의 교회가 여러 일을 당하고 있을 때 여러분처럼 나서서, 직장에 연가를 내고 휴가를 내고 와서 봉사를 하는데, ‘내가 구원 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무엇을 해야 하는가’ 알아야 한다. 만약 여러분이 이것을 모른다면 나는 잘못 가르친 것이 되는 것이다. 내가 혹 부족해서 못 가르쳤더라도, 여러분은 주의 말씀을 통해서 바른 신자가 되시길 바란다. 신자다운 신자, 성령의 사람, 하나님의 딸이 되시길 바란다. 그런 사람들이 모인 곳이 교회다. 교회를 해치는 사람은 교회가 아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이 지금 나를 부르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라. 지역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우리 교회 때문에 다 복음을 듣게 되는 지교회 운동이 일어나야 한다. 모든 중직자들은 훈련을 받으시고 힘을 얻으시길 바란다. 다 되었다고 생각하지 마라. 뭘 해야 하는가. 모른다면 아직 못 배운 것이다. 현장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증거를 얻어야 한다. 지역 살리는 사령관들이 되시길 바란다.

(2) 두 번째 미션은, 문화를 변화시켜야 한다. 후대와 미래를 살리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 그래서 바울은 가는 곳마다 회당으로 들어가서 후대를 살리고 문화를 뒤집었다. 사도행전 13장의 무속 문화, 사도행전 16장의 절속 문화, 사도행전 19장의 우상 문화가 무너지고 치유되었다. 복음으로 문화를 살리고, 이 문화에 가장 크게 영향을 받는 후대들을 살려냈다. 램넛트 일으키는 일이 우리 교회의 천명이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후대를 살리도록 언약을 전달하고 각인시키고 뿌리내리도록 기도제목을 붙잡고 기도하고 있는 것이다. 이번 총회의 주제도 후대에게 언약을 전달하는 총회라고 주제를 걸었다. 지금 전국 교회의 50% 이상이 주일학교가 없다고 한다. 나는 우리 태영아부 엄마들이 교회 근방으로 이사오는 것을 보면서 너무 감사했다. 자기들이 모여서 언약을 태영아 램넛트에게 전달하려고 공동육아를 하고, 그런 장을 만드는 것을 보면서, 말은 안 했지만 너무 감사했다. 여러분이 생을 걸고 후대 살리는 응답을 받게 되기를 축원한다.

(3) 많은 미션이 있겠지만, 우리가 간단히 붙잡아야 할 마지막 미션이 무엇인가? 오직 복음을 가지고 한국과 세계 교회를 회복시키는 자리에서 서는 것이다. 우리가 내일 총회를 개회하게 되고 총회를 위해서 섬기게 되는 응답을 받았다. 이것은 행사를 치른다는 이야기가 아니다. 우리교회가 아주 큰 교회도 아니고, 우리들이 대단한 부자도 아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중요한 때에 총회라는 큰 행사를 섬길 수 있게 하신 이유가 무엇이었는가. 초대교회 때나 종교개혁 때처럼, 힘 없는 한 사람, 한 팀을 불러서 세계의 흐름을 바꾸는 기도를 시작하게 하시는 것이 아니었는가. 그래서 한국과 세계 교회가 살아나도록, 미스비운동처럼 우상이 무너지고 모든 더럽고 추한 문화가 무너지고 모든 사람이 복음을 붙잡도록 기도하는 운동이 일어나게 되기를 바란다. 이 미

스바 운동의 미션을 감당하는 나와 참사랑교회가 되기를 축복한다.

이 천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헌신해야 할 나의 것을 찾아내어야 한다. 교회를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나의 것을 찾아보시기 바란다. 이번 주에도 찾아내야 되겠지만, 앞으로 계속 찾아보아야 한다. 내 남은 생을 계수해 보라. 그동안 내가 무엇을 해서, 어떤 기도를 해서, 무슨 행동과 어떤 말과 어떤 헌신을 해서 하나님의 천명을 이룰 것인가. 그러면서 그것을 이제는 작품으로 만들어서 남기시기를 축복한다. 모세가 교회를 위해서 헌신한 것이 성막이라는 작품이었다. 다윗이 언약케 모실 성전을 준비하면서 작품을 남겼다. 헌금만 한 것이 아니다. 시를 쓰고 곡을 붙여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는 작품을 남겼다. 시편 일흔 세 편을 남겼다. 이것이 지금까지 우리가 부르는 시편이다.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한 모든 헌신은 반드시 후대를 위한 인생 작품으로 남게 될 것을 믿으시길 바란다. 원하든지 원치 않든지 그렇다. 어떤 분은 후대들에게 영원히 잊지 못할 상처를 줄 수도 있다. 그러나 어떤 분은 그분을 생각만 해도 가슴이 저미어지고 옷깃을 여미게 되면서, ‘나도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서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품게 할 수도 있다. 꼭 돈이 많아야만 하는 것도 아니고, 많이 배워야만 되는 것도 아니다. 작품으로 남을 만큼 멋있게 헌신하는 주역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한다. 여러분, 하나님은 항상 교회를 자기 생명처럼 사랑하는 사람을 사용하셨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다윗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 기뻐했다고 했다(시122:1). 오늘 교회에 오면서 기뻐서, 제일 좋은 옷을 내어 입고, 바쁜 걸음으로 오셨는가.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복을 구하리라고 했다(시122:9). 바울은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밤낮 삼 년이나 눈물로 혼계했다고 했다(행20:31). 이만큼 피로 값 주고 사신 교회를 사랑했다. 우리가 이런 고백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되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되기를 바란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중심을 가지고 기도하다가 나의 일을 찾고 나의 목표를 찾고 나의 헌신의 방법을 찾고 나의 헌신의 열매를 맺게 되는 축복 누리시기를 바란다. 주님이 세우신 교회, 이 교회 위하여 나는 무엇을 할 것인가. 여러분에게 말하고 싶지 않은 이야기를 나는 지난주에 듣고 남기로 떠났다. 은밀하게 어떤 분이 나를 만나서 말했다. “목사님, 시달리지 마시고, 교회를 찾는 분이 있으니까 넘기고, 충분히 값을 받아드릴 테니까 드리고 다른 데로 가시면 어떻겠습니까.” 나는 깜짝 놀랐다. “왜 우리 교회를 그렇게 보십니까?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가 아닙니다.” 그리고 돌아와서 가만히 혼자 생각해 봤는데, 주변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그렇게 보는 것인가 싶어서 가슴이 너무 아팠다. 주신 축복을 지키시길 바란다. 내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주의 피로 사신 교회를 위해서, 우리 후대를 위해서 작품을 남길까 깊이 생각하면서, 총회를 보면서, 이번 한 주간 새로운 기도를 시작하시길 바란다. 인생은 짧다. 지난 총회 때 우리를 대단히 격정시키는 사람이 있었다. 어떻게 저런 사람이 나왔나 싶었다. 너무 가슴이 아팠다. 그런데 총회가 끝나자마자 세상을 떠났다. 아무도 그를 찾아가지 않았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왜 그런 말을 들어야 되겠는가. 우리가 세상을 떠날 때는 사람들이 아까운 믿음의 동지를 잃었구나, 복음의 일꾼을 잃었구나 해서 슬퍼하면서 천국으로 배웅하게 되는 그런 인생을 살아야 하지 않겠는가? 내년이 우리에게 회년이 된다. 우리가 헌신하지 않으면 헛날 수 없다. 꼭 천 명 되어야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우리 지금의 숫자만 가지고도 넉넉하다. 우리 믿음의 그릇이 문제일 뿐이다. 정말 믿음을 가지면, 하나님은 그 믿음 위에 은혜를 베푸실 것이다. 아마 야곱 이후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 같다. 야곱이 약속을 안 지켰다. “내가 형통하게 되어 고향으로 돌아오게 해 주시면 내가 여기에 하나님의 집을 짓고 십일조를 하고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그렇게 약속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그렇게 축복하셨는데, 와서는 하나님도 그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 그러다가 딸이 강간을 당하는 사건이 벌어졌다. 그 오빠들이 그 사건을 일으킨 세겜 사람과 그 친족들을 속여서는 복수로 그들을 모두 살육했다. 그때 야곱이 생각했다. ‘큰일 났구나. 저 가나안 사람들이 연합해서 우리를 치고 죽여서 멸망시키지 않겠는가.’ 그때 서야 이야기했다. “애들이, 우리가 벨렐로 올라가자. 모든 우상을 물어 버리고, 언약의 땅으로 올라가자.” 그래서 그 민족이 살게 되었다. 그 이후로 보니까, 하나님이 미리 안 주신다. 봐 가면서 주신다. 하나님이 더 이상 인간들에게 안 속겠다고, 하는 것 봐 가면서, 하나님께 인정받는 여러분의 삶과 우리 참사랑교회가 되기를 축복한다.

“하나님, 49주년 축제의 날입니다.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우리가 행여 부끄럽게 살았다면, 49년을 돌아보며 새로 시작하게 해 주시옵소서. 김근숙 할머니가 천막을 열고 복을 두드리면서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고 전도했는데, 그 수고와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부족한 중 때문에 교회가 많이 성장하지는 못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축복해 주셨습니다. 이제는 부끄러운 말을 듣지 않고, 지역을 살리고 문화를 바꿀 만한 하나님의 교회로 견고히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사람을 바라보지 말고, 나의 헌신을 생각하며 살다가, 복음의 사람으로서 인생 작품을 남길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